

자영업자 많은 광주·전남 중장년 대출 증가…경제상황 갈수록 악화

2023년 기준 중장년 가구주 늘어
광주 호남 유일 노후준비 비중 감소
소득 있는 중장년 비중 70% 넘어

광주·전남지역의 중장년(40~64세)층의 대출이 증가하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중장년층의 비중마저 감소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계로 본 호남·제주지역 중장년'을 발표했다. 이번 자료에서는 광주·전남·전북·제주 등 호남지역의 중장년층을 인구, 경제활동, 경제상황, 노후준비·건강 등 4개 분야를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 중장년 인구 수는 2023년 기준 57만 4000명으로 2020년(57만 2000명) 대비 0.4% 증가했고, 전남은 1000명(0.2%) 감소한 68만 4000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광주는 중장년이 가구주인 '중장년

가구'가 7000가구(2%), 전남도 9000가구(1.1%) 늘었다. 이는 전반적인 혼인 감소 및 출생이 많았던 세대의 중년층 진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는 중장년 가구 중 4인 이상 가구가 26.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전남은 2인 가구(30.8%)가 가장 많았다. 전남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부부 가구 등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모두 중장년층의 자영업 종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중장년 등록취업자는 2023년 기준 39만 8000명, 전남은 44만 7000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 모두 중장년층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도소매업이 각각 26.4%, 24.4%로 가장 많았고, 임금근로자에서는 광주는 제조업(17.6%), 전남은 건설업(17.9%) 비중이 높았다. 지역 중장년의 경제 상황은 대출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소득이 있는 중장년 비중이 79.9%로 전국 평균

(79.6%)보다 높았지만 고소득자는 전국에 미치지 못했다. 전남은 75.3%의 중장년이 소득이 있었다. 또 2020~2023년 기준으로 중장년 중 '대출 있음' 비중은 광주가 77.5%에서 79.9%로 2.4%포인트(p) 늘었고, 전남 역시 3.3%p 증가한 75.3%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지역 중장년층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비중조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에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중장년 비중은 2023년 기준 82.7%로, 2019년(83.5%) 대비 0.8%p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에서는 노후를 준비한 중장년 비중이 76.9%에서 79.3%로 2.4%p 상승했고, 전북(+3.7%p), 제주(+2.8%p) 등이 모두 올랐다. 이 밖에도 광주·전남 중장년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암'으로 조사됐다. 암으로 사망한 중장년 비중은 광주가 35.9%, 제주(33.4%), 전북(32.3%), 전남(31.2%) 순이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콘텐츠 도쿄 2025 전시회 '광주콘텐츠코리아랩 공동관' 부스에서 지난 2~4일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되는 모습. <GICON 제공>

GICON, 지역 콘텐츠 기업 글로벌 진출 확장

3개사 함께 '콘텐츠 도쿄' 참가

현지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미팅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콘텐츠 도쿄 2025'에 지역 콘텐츠 기업 3개사와 함께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콘텐츠 도쿄는 매년 도쿄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콘텐츠 전문 전시회로, 영상·만화·게임·라이선싱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기업과 바이어들이 참여하고 있다. GICON과 지역 기업들은 광주콘텐츠코리아랩이 콘텐츠 분야의 유망 기업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전시회에 참여하게 됐다. 각 기업들은 자사 IP를 기반으로 현지 바이어들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광주지역 캐릭터 콘텐츠 기업 '플로피즈'는

자사 대표 캐릭터인 '루크'와 '루나'를 중심으로 전시·홍보활동을 펼치고, 일본 의류 브랜드 및 굿즈 제작사와 협업 제품 개발 및 콜라보 상품 기획 등을 논의했다. 영상 콘텐츠 기업 '콘텐츠팜 호미'는 앞서 광주FC 다큐멘터리를 쿠팡플레이에 공개한 바 있는데, 이번 전시회에서 일본 요코하마 축구영화제 출품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 웹툰 콘텐츠 기업 '비에스'는 웹툰 '후디후디'의 디자인으로 일본 일러스트 업체 및 의류 브랜드와의 협업을 논의하고, 웹툰의 세계관 확장 및 글로벌 연재 가능성 등을 협의했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이번 전시회 참가로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확장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네트워킹 기회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집값·가계대출부터 잡는다…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

역대 최대 2%p 한미 금리차 부담
“경기부진 고려 더 낮춰야” 지적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이날 의결문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킨을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 하지만 이날 다시 인하를 멈춘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뛰어나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서둘러 내렸다.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한은의 동결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미국 관세 충격도 더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에서, 집값과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냉감 이불로 꿀잠 주무세요” 광주신세계 본관 8층 ‘더 조선포탈’에서 직원이 냉감 차렵이불 등 시원한 소재로 만든 침구들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지난달 28일부터 광주·전남지역 열대야가 일주일 넘게 지속되는 등 무더위에 지친 지역민을 위한 다양한 침구류를 내놓고 있다. 파워쿨 냉감소재로 유명한 ‘코지네스트’는 10~14일 블랙데이 할인을 통해 전품목 50% 할인하며, 호텔 침구류 브랜드 ‘더 조선포탈’에서는 냉감 차렵이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11만 2000달러

하반기 15만 달러 돌파 전망도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비트코인이 11만 2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으로, 올 하반기 15만 달러 돌파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9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5시 58분(서부 낮 2시 58분)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26% 오른 11만1224달러에 거래됐다.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지만, 가격은 한때 3.04% 오른 11만2055달러까지 터치했다. 지난 5월 22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1만1900달러대를 한 달 반 만에 넘어선 것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달 넘게 10만 달러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던 비트코인은 이날 인공지능(AI) 칩 대장주 엔비디아가 주도한 주식 시장 랠리에 힘입어 뉴욕 증시 장 마감 무렵 40여분만에 10만9000달러대에서 11만 2000달러대를 돌파했다. 이날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장중 사상 첫 4조 달러에 오르는 등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94% 상승 마감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터리움은 5.52% 상승한 2750달러를, 엑스알피(리플)는 4.40% 오른 2.41달러에 거래됐다. 업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기업들이 비트코인 매입을 늘리고 미 의회가 가상화폐 입법에 나설 경우 비트코인이 15만 달러대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상의 회원 기업 세무회계·챗GPT 교육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회원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회계와 챗GPT 교육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각각 오는 14일과 28일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핵심 세무 관리 사항 해설 강의와 생성형 AI인 챗GPT 활용 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통해 경영·세무·회계 부서 업무 담당자들의 실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4일에는 세무·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절세전략·세무사가 알려주지 않는 핵심 절세법' 교육이 진행된다. 오종원 회계사가 2025년 1기 확장신고대비 대손세액공제 절세법, 업무추진비 세무관리, 근로소득 원천징수 비과세 규정 등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28일에는 '선생님이 먼저 배우는 챗GPT'를 집필한 박지훈 강사가 '챗피피티의 원리 및 활용 방안 A to Z'를 주제로 교육한다. 강의를 통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문서·논문 작성, 프롬프트의 이해, 작성법 실습 등을 배울 수 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실무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절세 전략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최근 기업 경영과 행정 업무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는 생성형 AI 교육을 통해 회원 업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수강생에게는 교육 교재와 수료증이 제공된다. 교육 신청 등은 광주상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회원사업본부(062-350-5883)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파죽지세 상승 랠리에

국내 증시 시총 3천조원 돌파

국내 증시(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은 총 3020조769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시총은 2603조7392억원, 코스닥과 코넥스는 각각 413조8598억원, 3조1704억원으로 조사됐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3000조원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지수 상승세에 코스피 시총이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영향이 크다. 지난해 말 1963조

3288억원이던 코스피 시총은 연초 2000조원대로 올라섰고, 지난달 말 2500조원대에서 등락했다. 이날은 단숨에 2600조원 선을 돌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83.23 (+49.49)
▲ 코스닥	797.70 (+7.34)
↓ 금리 (국고채 3년)	2.433 (-0.045)
↓ 환율 (US D)	1371.95 (-3.05) 〈오후 4시 54분 기준〉

직장인 절반 상반기 이직 활동…28%는 실제 이직 성공

직급 낮을수록 이직 활동 잦아

올 상반기 동안 직장인 절반이 이직을 준비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커리어 플랫폼 '사람인'은 10일 직장인 1302명을 대상으로 이직 관련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50.2%가 올 상반기에 '이직 활동을 했다'고 응답했다. 직급별로 보면 대리급(56.2%), 과장급(51.8%), 부장급(48.1%), 임원급(34.7%) 순으로 집계됐다. 이직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력을 쌓아야하는 시기인 사원급(51.4%)를 제외하면 직급이 낮을수록 이직 활동이 잦았던 셈이다. 기업 규모가 크면 이직 활동도 활발했다. 기업 형태별로 대기업이 61.6%로 이직 활동을 한 직장인이 가장 많았고, 외국계기업(54.8%), 공기업(51.9%), 중견기업(47.3%), 중소기업(49.6%) 순이었다. 이직 활동으로는 '채용공고 탐색'이 80%로 가장 많았고, 이력서·자소서·포트폴리오 작성(65%), 면접 준비(33.6%), 자격증 준비(21.7%), 필기시험·인적성 시험 준비(13%), 어학시험 준비(8.1%) 등으로 나타났다. 이직 활동을 펼친 직장인 중 28%는 실제로 이직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이직 준비 기간은 평균 5.6개월로 집계됐으며, 현재 근무조건보다 좋은 상황 이직은 이직 성공자의 42.6%, 비슷한 조건으로의 이직은 33.9%, 조건을 낮춰 하향 이직한 비중은 23.5%였다. 이직에 성공한 요인으로는 '적합한 직무 경험 보유'가 74.3%로 1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적극적인 구직 의사 홍보(24.6%), 성실한 이력서 포

트폴리오 관리(24.6%), 꼼꼼한 면접 준비(16.9%), 효과적인 인맥·평판관리(14.8%) 등이 꼽혔다. 이직에 실패한 직장인은 전체 1302명 중 471명(36.2%)으로 집계됐다. 실패 이유는 '지원 할만한 공고 부족(64.8%)', '직무 경험 부족(20.6%)' 등이 있었다. 사람인 관계자는 “직장인은 경력과 함께 역량, 평판 등이 모두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며 “평소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부족한 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직장인들은 기업을 볼 때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연봉 등 경제적 보상(71.7%)'을 선택했다. 이어 '고용 안정성(53.1%)', '정시 근무시간 보장(43.7%)' 등을 들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